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③

3월 19일

주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

# 형상만 보면 중생 공공 알면 부처



고우 스님

(각화사 선덕)

불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사실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 즉 정견(正見)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인가? 깨달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생활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실제론 차이가 없습니다. 꼭 같아요. 꼭 같으면 우리는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뭐 하는 것도 동시에 이해하게 됩니다.

### 계속 비교하며 자신 학대

우리는 모든 것을 형상만 보고 있습니다. 형상만 쳐다보고 그 형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계속 분별을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형상만 쳐다보는 사람을 장님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형상만 쳐다보는 장님이다보니 길을 걸을 때 부딪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 상처가痍아 떨어져 몹시 고통을 느끼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난만 그런 게 아니라 코, 귀, 입까지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며 살고 있습니다.

취사선택하면서 자기만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앞집은 그런자인데 우리 집은 왜 더냐. 옆집 애는 서울대를 다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자기도 확대하고 주변 사람도 확대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나 세계가 그런 식으로 비교, 우열을 따지고 취사 선택하면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은 형상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보십니다. 우리는 형상만 보는 반면 부처님은 형상도 보지만 공(空)을 하나 더 보시는 거예요.

공을 보게 되면 장님이 눈을 떠버리니까 부딪칠 일도 넘어질 일도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만 이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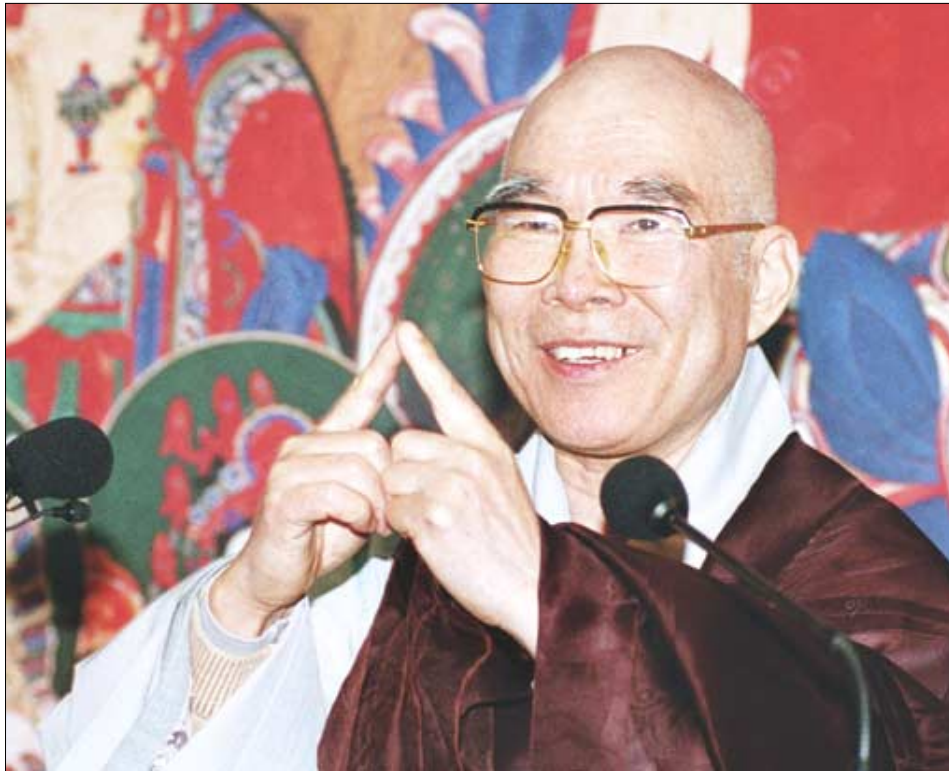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새끼, 가마니, 떡석, 짚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형상이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의 재료는 짚인데, 짚의 입장에서 보면 가마니나 새끼나 떡석이나 짚이냐 다 같아요. 거기에는 귀천도 없고 우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짚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공(空)입니다.

우리의 짚은 무엇이겠습니까?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했지요.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선종에서는 주인공, 본분자리라고 하는 등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이지요. 간혹 이름만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름만 듣고 추측하는 것은 바로 안 것이 아닙니다. 바로 봐야 합니다. 오직 이 '짚'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생활화하면서 체험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수행이고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불교는 크게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불교공부는 이해를 깊이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가고 생활에 적용해 가면 깊이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서장>을 보면 '선 것이 익어가고 익어



고우 스님은

- 1937년 성주생
- 20살 때 청암사 수도원에서 법회 스님을 은사로 출가
- 관음 · 고흥 · 혼해 스님으로부터 각각 기신론 금강경 원리경 수학
- 촉서사김용사 등 제법선원에서 참선 정진
- 1968-9년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의기를 다짐
- 각화사 태백선원장 역임, 현재 불화각화사서임에 주석

가는 것이 쉽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 것이 익어간다는 것은 익어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적음할 때 어렵지 조금만 적음해서 생활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 세상은 연기로써 존재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생활화하고 수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처님과 다른 점이 실제로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오온이 깨끗한 줄 알고, 나의 짚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면서 생활에 적용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참선을 하든지 열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차근차근 수행해 갈 때 불교가 우리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짚이고 공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갈 수 있습니

다. 나라는 이 존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든,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로써 존재합니다. 연기는 글자 그대로 인연이 모여가지고 형상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보제루만 해도 천 가지 재료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료 가운데는 나무도 철문도 있고 못이나 기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의 무엇을 갖고 집이라고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여가지 재료가 만든 것이 집이 저질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세월이 가서 허물어지면 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무아(無我)라고도 합니다. 이 몸종이도 60조의 세포가 모여 있는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조 중 어느 세포를 갖고 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신도님들은 이것을 알면 '나라는 것이 없고 실체가 없다'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지금도 여러 신도님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고, 귀천과 우열을 따지는 등 계속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자리가 없어집니다.

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빛과 같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듣고 수행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 중 어느 세포를 갖고 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신도님들은 이것을 알면 '나라는 것이 없고 실체가 없다'면 너무 허망하고

게 아닙니다.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사고하고 행위도 하면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원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물, 무정물 모든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느냐? 선수행은 생활에 선이 스며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능엄경>에 손가락과 달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가 달이고 손가락은 진리를 보라고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선 불교는 아예 달을 얘기해 놓고 생활속에 바로 스며들어가서 달로써 생활하도록 하는 수행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불교는, 수행방법에 생활을 맞추는 다른 나라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은 생활과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공부거든요. 우리의 선은 철저히 '달' 불교입니다.

### 생활에 禪 녹아들어야

그런데 달 불교를 한다는 한국불교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수행은 수행, 생활은 생활,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도인은 멀리서 봐야 도인이자 가까이서 보면 도인이 아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정말로 육입니다. 이 말은 '공부도 안한다, 생활화도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인이 안 나온다. 선지식이 없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법회를 열기로만 끝나지 말고 생활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생활화도 한 번에 다하지 말고, 백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해가면 백 가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선, 열불,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팎으로 맞아서 수행이 되고 공부해 됩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정견을 세워서 그것을 생활에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공부가 성취되는 것이지, 생활 따로 공부 따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 천미희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서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셔야만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잡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공공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중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지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 1장을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형 : 신문원형(40cm x 55cm) • 절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격 : (상·하 2권) 총 80,000원(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 2003년(상·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 주문 및 문의: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화랑 스님

화두통해 사랑분별 끊어진 마음상태 만들어야

화랑 스님: 목조선에서는 '한 치 없으면 한 치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래성불해 있다고 합니다. 간화선에서 정견을 세워야 된다고 할 때 본래성불해 있다는 입장과 목조선에서 말하는 본래성불은 어떻게 다른지 묻습니다.

또한 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지는 삼매(三昧)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밤 먹음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삼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요? 돈오와 점수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왜 돈오 정견을 세워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우 스님: 본래성불이라 할 때, 우리 존재원리는 절저히 '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신심(信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본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왜 비교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본래 모습대로 들어가는, 매일 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것이 불교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조사스님이나 도인스님들이 우리에게 화두를 제시합니다. 손가락 드는 분도 있고 주먹을 드는 분도 있고 말로 통박대기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똥맛에 갓나무'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본래 달인데 왜 손가락을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화두에는 손뼉만치도 사랑 본분이 붙으면 안 됩니다. 즉 주관과 객관을 나누면 선이 아닙니다. 화두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 본분이 박살이 나는 그런 마음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없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화두를 제시한 것인데 못 깨닫고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 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앉아 있는 것만 좌선이 아닙니다. 모르면 차 타고 가면서도 의심하고 밥 먹으면서도 의심하고 일상생활을 통

해서 의심하고 있으면 그게 좌선이예요.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독서삼매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적적성성(寂寂惺惺)입니다. 이 불교 삼매를 통해서야 아무리 삼매에 깊이 들어가도 일상생활은 그대로 합니다. 삼매에 들었다고 해서 방으로 갈 걸 밖으로 가고 부엌으로 갈 걸 화장실에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삼매에는 거의 성성은 없고 적적만 있습니다. 적적삼매에 들면 행동도 정지하고 먹고 배설하는 것도 정지합니다. 그러면 생활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버리지요.

<육조단경>에 '적적과 성성을 분리하면 외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적성성이란 것이 하나로 끌려갑니다. 적적성성으로 생활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제일 쉬운 말로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라 합니다. 응무소주가 바로 적적입니다. 이생기심은 성성이고요. 이것이 하나로 어울려서 생활하면 도인이라 하고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삼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어서 비교하지도 않고 구별하지도 않고 전부 다 평등하게 보면서 마음이 평정히 평화됨과 평정히 자유 할 수 있는, 매일 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화랑 스님: 목조선이 묵묵히 삼매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진대 본래성불이라는 입장에서 결국 깨어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화선에서도 화두를 꼭 들어야만 성성하게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성성할



절의 법사: 화랑 스님

- 법어사 출가
· 동국대 승가학과 졸업, 선학과 박사과정수료
· 현재 동국대학교 선학과 강사
·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재가 절의자: 조명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일본 고지사와 대학 불교학부 연구원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객원 연구원
· 현재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연구원



3월 19일 열린 고우스님 초청 법어사 설선대법회에는 4천여명이 참석, 고우스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제법 때마침 불멸 때문에 행어 공부에 방해가 될 세라 법어사에서는 3천여개의 선캅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 있다면 화두가 없이 목조선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거든요.

고우 스님: 간화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고 화광반조해서 깨달음을 얻는 목조선이 있습니다. 간화의 경우, 의심이 먼저 생기니까 성성이 돼서 적적이 따라오게 하는 간화의 경우는 성성적적이려면 목조는 적적성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는 것인데 적적성성, 성성적적 이것만 갖춰지면 삼매를 거쳐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래성불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공부할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상근기 하근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절저히 믿고 발심하면 다 상근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

내가 부처라는 자부심으로 스스로 세상을 맑혀가자

상근기다 하근기다 이걸 나눌 게 아니라 무조건 믿고 우리가 그런 의지로 진심으로 믿고 공부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목조선, 간화선의 우열은 절대 없습니다.

화랑 스님: 제가 스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돈오점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 안 하시겠다고 하더니 역시 답을 안 주시는군요.

고우 스님: 중국의 육조 스님하고 신수 스님이 돈오돈수, 돈오점수 갈라졌는데요. 신수 스님은 돈오점수고 육조 스님은 돈오돈수인데 육조 스님의 뿌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조 스님 이후 돈오돈수 돈오점수가 나눠진 했지만 모두 육조 스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같으니 그것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고 같이 인정하고 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수행해서 구경(究竟)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명제: 현실적인 생활의 조건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개개인을 만나서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행복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사회 구조나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더라도 결국은 각자의 마음자리, 본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에 마음자리도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본래의 마

음자리를 과연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선을 대중화하려면 어떻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고우 스님: 현재 우리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고 물질도 아주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행복하냐? 행복 안 하거든오 더 불안해요. 더 각박하고, 격정도 더 많고...

왜 그러느냐? 형상만 보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바깥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면을 찾는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도덕 교양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성이 메말라 겁니다. 동물과 거의 다름없이 원생 늪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투쟁하는 이것을 종식시켜서 정말로 더불어서 서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라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내 개인부터라도 그렇게 해 가면 그것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게 바로 화중생(下化衆生)이고 사회화가 아닙니까?

조그만 맑은 물이 큰 연못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라도 조금 조금씩 맑혀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려면 굉장히 고달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행복감을 느끼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가정주부, 장사꾼, 직장인 등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열심히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법을 이해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생활화 하는데 절대로 손해보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천하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이해를 집중적으로 하고 실천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리= 천이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dvertisement for medicinal ginseng (山參) with text: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and '심마당 長腦山參'. Includes benefits and contact info for Seoul branch.

Advertisement for lighting products (사찰 연등 및 전선) with images of lanterns and text: '불제대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Includes product details and contact info.